

##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4·15 총선 경쟁 '스타트'

16일부터 의정보고회 등 선거행사 금지시한 압박  
출마선언·세과시·비용 모금 등 일석삼조에 붓물

광주·전남지역 정가가 21대 총선 예비후보들의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등으로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다. 4·15 총선 90일 전인 오는 16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집회와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12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03조에는 선거 90일 전부터 각종 집회의 개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인 국민운동단체의 집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출판기념회 등 모든 행사의 개최를 선거일까지 제한한다.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반상회도 포함된다.

총선 예비주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얼굴을 알리고 세를 과시하는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출마선언과 세과시 등 인지도를 알리는데 효과가 있고, 합법적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하는 행사로 자리매김 했다.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남)은 12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공감' 북 토크(출판기념회)를 열고 지지자 결집에 나섰다.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의원(목포)도 첫 출판기념회 대열에 동참한다. 박 의원은 오는 15일 오후 3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교인 목포 목상고 인동관에서 열린다.

지난 11일은 10명의 총선 예비주자들이 선거 관련 행사를 가졌다. 김명진 예비후보는 11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명품서구 진짜일꾼 김명진' 출판기념회를 열고 세몰이에 나섰다. 양향자

예비후보도 같은날 '새로운 미래 새로운 인재' 출판기념회를 열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으로 기업과 국가의 인재를 양성한 경험을 피력했다.

전 청와대 행정관인 박시중 예비후보와 서정성 예비후보도 각각 광산구 남부대 협동관과 광주 문성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진행했다.

민행배 예비후보는 11일 선거사무소 '민심캠프' 개소식을 갖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가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희용 예비후보와 김성진 예비후보도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전 방위사업청 차장을 지낸 한명진 더불어민주당 고홍보성장흥강진 예비후보와 순천지역에 출마하는 서갑원 전 국회의원으로 각각 '돈이 도는 지역경제 한명진이 답이다'와 '반보 앞서간 노무현의 반보 뒤에서 정치를 배우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행보를 알렸다.

장병완 국회의원으로 같은날 남구문예회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며 광주·전남 대형국책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고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밝히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총선 예비후보들이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선거사무소 개소 행사가 붓물을 이룰 전망이다"며 "출판기념회 등 선거 행사가 마무리되면 각 후보가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될 것이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가창오리떼의 군무 1월의 두번째 휴일인 12일 광주 전남지역은 흐리고 쌀쌀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겨울 철새인 가창오리 수만마리가 해질무렵 멋진 군무를 펼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이낙연

### '여의도 컴백'

중량감 커 총선 역할론 주목  
선대위원장·종로 출마 예상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달 말 총선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당내 역할과 총선 출마지역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총리와 민주당 측은 즉답을 피하고 있지만, 이 총리의 정치적 중량감을 따져볼 때 수도권 중심지 출마와 선대위원장 행보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총리의 당 복귀는 이달 말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 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여의도 복귀는 전남지사 선거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2014년 3월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 총리는 후임자인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같은 날 곧바로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즉, 14일부터는 "자연인" 신분이 되는 것이다. 이후 언제든 당에 복귀할 수 있지만, 선대위가 출범하는 날 '공동 선대위원장' 직함을 갖 수 귀환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민주당은 설 연휴(1월 24~27) 직후로 선대위 출범 시점을 잡고 있다.

이 총리가 공동 선대위원장 직함을 갖더라도 실제로는 '권역별 선대위원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초 유력 대권주자이자 전국적 인지도가 높은 이 총리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당의 '간판'이 돼 전국을 돌며 승리 분위기를 견인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서울 종로를 비롯한 험지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전국보

다는 권역별 지원 유세에 나서는 방안이 힘이 실린다.

민주당은 수도권,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강원, 충청, 호남 등 권역별 선대위원장을 따로 둘 방침인데, 이 경우 이 총리는 자신의 출마지가 속한 권역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험지에 출마해놓고 전국 유세에 나설 경우 정작 본인 선거에 낙승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정세균 후보자가 기존 지역구였던 호남을 떠나 종로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맞붙어 초반 열세를 뒤집고 당선됐던 사례가 당에서 회자된다. 당시 승리 요인 중 하나로 오 전 시장이 다른 지역 지원 유세를 활발히 다닌 점이 꼽히기 때문이다.

이 총리의 출마 지역은 총리직 사퇴 이후 이해찬 대표와의 논의를 거쳐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종로 출마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진다. 험지이면서도 정치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런 흐름에 제가 놓여가는 것이라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종로'에서 선거 지휘를 하는 차원에서 세종 출마 요구도 일각에서 여전히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장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주례 비공개 당정청 만찬에서 이 총리의 향후 일정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강병운 기자

## 전남 고령인구 비율 최고...평균나이다 46.2세

우리나라 고령화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은 분포 인구 대비 평균 나이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6세 이상으로 조사돼, 출산을 저하와 노동력 감소 등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지역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4만9,8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말보다 0.05%(2만3,802명) 늘어난 데에 그쳤다. 주민등록인구는 출생·사망 등 자연적 요인이나 국적취득·상실, 재등록·탈소 등에 따라 변하는데

지난해에는 인구수에 거의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증가율과 증가 인원 모두 정부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은 2009년 0.47%(증가인원 23만2,778명)에서 2010년 1.49%(74만2,521명)로 올랐다가 이후 계속 하락 추세다. 2018년에 0.09%(4만7,515명)로 처음으로 0.1%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번이 다시 역대 최저 증가율 기록을 갈아치웠다. ▶2면으로 이어짐

/김영민 기자

## 2020

전남매일 제2기 광주/전남

# CEO경제아카데미

## 원우 모집

### 성공의 디딤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전남매일 제2기 광주·전남 CEO경제아카데미」는 비즈니스클럽으로 회원 여러분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강좌로 당신을 자신감과 리더십 그리고 열정을 갖춘 최고지도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원자격**  
기업 최고 경영자 및 임원, 국회의원, 지방회의원, 자치단체장, 정부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원서접수 기간**  
2019. 12 ~ 2020. 02. 14

**강의장소**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강의시간**  
월요일 19:00 ~ 21:00 (※ 18:00 호텔식 식사후 강의)

**교육기간**  
2020년 3월 ~ 2020년 11월 (한달에 2번 강의)

**M 전남매일** 문의 및 접수처 : 전남매일 사업국 062) 720-1011, 1099